

전북대 K-방산 육성 계획 구체화

전북대, 방위산업 전문기업 LIG 넥스원과 협약 체결 양 기관 인·물적 자원 교류, 기술·경험 공유키로 방산 관련 미래사업 기획·상호 간 사업 역량 강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국가 전략산업인 국방·방위 분야의 발전을 위해 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과 산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일 LIG넥스원 판교하우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오봉 총장과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 강은호 전북대 방위산업연구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 기관의 인·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성공적인 산학협력 모델 구축

을 위해 방위산업 관련 미래사업을 기획하고, 상호 간 사업 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국내 최고 방위산업 기업인 LIG넥스원과 협약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는 전북대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굴지의 방위산업 기업체와 함께 K-방위산업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방위산업융합전공' 설립



전북대학교는 국가 전략산업인 국방·방위 분야의 발전을 위해 LIG넥스원과 산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을 추진중이다. 이에 이 분야 국내 최고 기업 중 하나인 LIG넥스원과 협약을 통해 K-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대의 계획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추석 연휴

학교 등 주차장 무료 개방

총 741곳... 주차 편의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추석 연휴 기간 교육시설 및 학교 741곳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방 대상은 분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학교 등이다. 주차장 위치와 개방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이용자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 차량 앞면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학교 출입시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방 정책에 따라 평소에도 도민들에게 주차장을 적극 개방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귀성객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주차장을 개방한다"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주차장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동북아인문사회연구소 '도교재판으로의 길' 번역 출간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유지아 교수가 방광석(홍익대) 교수와 함께 번역한 '도교재판으로의 길-극동

국제군사재판 개정사'가 출판됐다. '도교재판으로의 길(저자 아와야 겐타로)'은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 패전 후 전쟁범죄자 체포에서 기소까지의 여정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추적한 역사서로, 정치적 의도가 얽힌 국제 검찰국 설립, 천황 변호론을 전개하는 기도 고이치 내대신 일기, 소와 천황의 전쟁책임 문제 등 도교재판의 개정에 이르는 구체적 과정을 연한국 총사령부(GHQ) 및 검찰 측과 일본 측의 교섭·대항 관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또한, 미국 주도로 전범재판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한계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소와천황의 불기소와 전쟁책임, 소추 대상의 축소, 재판 대상에서 식민지 지배 제의 등 도교재판에 기소돼야 할 대상이 면책되고 재판의 범위가 축소된 도교재판의 한계, 문제점 등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유지아 교수는 "일본인이 아닌 한일 양국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전후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밝히는 데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은 물론 여전히 존재하는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갈 단서를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6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도내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확대와 해양문화 자긍심 고취를 위한 협력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생들의 해양문화 자긍심 고취 협력체계 확대

전북자치도교육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협약... 도내 청소년 진로 체험 확대·인재양성 협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6일 5층 회의실에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내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 확대와 해양문화 자긍심 고취를 위한 협력체계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김성배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 진로체험 및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에 관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약속했

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수중문화유산 발굴 조사와 보존·분석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전통 한신 복원과 활용 및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는 국가유산청 산하 해양문화유산 종합연구기관이다.
현재 총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2030년까지 군산 비응도 일대에 국립수중고고학센터를 건립 중이다.
김성배 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소년들이 지역 해양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을 통한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해양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전북지역에 건립될 국립수중고고학센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학생부종합전형 900명 등 총 3128명... 오늘부터 13일까지 인터넷 통해 접수

공과대학 학과가 공학계열 1·2로 나뉘는 등 계열 중심으로 모집 단위 변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4,398명) 중 71.1%인 3,128(정원 외 포함 3,26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원서접수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nu.ac.kr>)에서 인터넷으로만 받는다.
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900명, 학생부교과전형으로 2,228명, 예체능 실기전형으로 137명 등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로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점수(70%), 면접 점수(3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간호, 수의, 약학, 의예, 치의예과를 제외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어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일반학생과 지역인재 등에 학생부 100%를 적용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한다. 농어촌학생의 경우 올해부터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학생부 교과성적을 80%, 정성평가로 20%를 반영해 선발한다. 예체능 실기 전형은 학생부 외 실기고사 점수가 반영된다.



전북대학교 본부 전경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초 합격자는 12월 13일 오후 2시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졸업생 취업캠프

전주비전대학교 취업업체(저장 박심훈)는 최근 졸업생 취업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취업 준비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막대한 자기소개서 작성에 자기진단 프로그램과 취업 컨설팅 선생님의 지도로 서류전형 준비에도 자신감을 가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일자리 창출 기여 공로 '인정'

전북대,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지역 내 고용 창출 등서 핵심 지표



전북대학교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북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대가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소비 효과 등에서 핵심적인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는 교수와 직원, 조교, 대학병원 등에서 약 8천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재학생 수를 합치면 생활인구 역시 2만 9천 명에 달한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체 인구의 1.64%, 전주시 인구의 4.35%, 전북 경제활동인구의 2.88%를 차지한다.
이를 통한 전북대의 고용 창출 규모는 지역 전체 산업 종사자 수 대비 1%의 비중을 차지하는 단일 기관으로서 전북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고용과 소비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오봉 총장은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은 전북대가 지역 사회와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와 헌신을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라며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선도하는 플래그십 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지역 발전이 대학 발전이라는 사명으로 변화와 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첨단산업 인재양성 허브 자리매김

국립군산대, RIS 등 통해 차별화된 교육 기회 제공

교육부·과기정통부 등 정부국책사업서 탁월한 성과

국립군산대학교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부국책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며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군산대는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전북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대학내 산학협력단지조성사업 △이차전지 K-하이테크 플랫폼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을 통해 차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첨단산업분야 인재를 대거 양성하고 있다.
특히 '전북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최우수 강소특구 사업단으로 선정되었다. 총 24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기술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 지역산업 육성의 중추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국립군산대는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RIS)사업의 에너지산업 중심대학으로 선정됐다. 18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관련분야 시설 구축, 기업기술고도화 및 R&D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실무현장에서 생생한 경험을 쌓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된 국립군산대학교는 총 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만금캠퍼스 내 신재생에너지특성화관에 산학협력 단지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립군산대는 첨단산업과 대학, 연구소, 지역 기업을 하나로 연결하는 혁신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재로 성장해, 졸업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차전지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차세대 최첨단 배터리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력을 교육하는 이들 사업을 통해 국립군산대는 8억원과 80억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차전지와 관련된 최신 기술을 학습하게 되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에서는 최대 연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응용 가능한 맞춤형 기술력을 기를 수 있다.
이처럼 국립군산대학교는 군산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한 첨단 지원 시스템과 산학협력인사시스템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미래산업에 이끔 핵심인재로 성장시키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이처럼 국립군산대학교는 군산국가 산업단지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한 첨단 지원 시스템과 산학협력인사시스템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미래산업에 이끔 핵심인재로 성장시키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수학 학습장애 조기 예방 방법 마련 기회

전북교육청, 난산증 이해 연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8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하반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난산증 이해 연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는 오전·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에는 교장·교감·기초학력업무담당 장학사 280여 명이, 오후에는 학력지원센터 과학교(강)사·학습지원 담당교사·수석교사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난독증과 난산증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한 소아정신과 전문의 정재석 원장이 강사로 나서 난산증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후, 현장 교사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한편, 난산증은 정상 범주의 지능을 가진 학생이 충분히 학습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감각이 낮고, 단순 연산이나 값 읽기, 연산 절차를 해결할 때 어려움을 겪는 증상이다.
또한 난산증은 난독증과 혼재돼 나타나는데 경우가 많고, 조기에 발견해 교육지원이 이뤄져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난산증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학 학습 장애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난산증 학생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